

嵇康 《聖賢高士傳贊》解題와 翻譯*

최 세 윤**

<목 차>

1. 嵇康 《聖賢高士傳贊》解題
2. 嵇康 《聖賢高士傳贊》翻譯
3. 나가는 말

1. 嵇康 《聖賢高士傳贊》解題

嵇康(223~262)은 중국역사상 정치, 사회적으로 가장 혼란스러웠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유가사상의 확일성과 한계상황에서 벗어나 지극히 자유로웠던 위진 시기를 대표하는 문학가이자 사상가이다. 위진 시기는 한 마디로 '천하에 변고가 많아 명사들 가운데 온전한 자가 별로 없었던 시대¹⁾'였기에 속세를 등지고 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려는 隱逸사상이 성행하게 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詩歌와 論說文을 위주로 문학가로서 후세에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혜강 또한 당시 이러한 조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隱士 및 隱逸사상과 관련된 작품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聖賢高士傳贊》이다.

혜강의 《聖賢高士傳贊》은 첫 번째로 '高士'라는 명칭을 사용해 작성된 인

* 본 연구는 2015학년도 고신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루어졌음.

** 고신대학교 국제어학부 중국학전공 교수

1) “天下多故，名士少有全者。”(《晉書·阮籍列傳》)

물전기로서, 寓言과 假說 등의 형식을 빌려 전통적으로 은사로서 칭송을 받아 오던 다양한 ‘聖賢高士’를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혜강은 그들의 기사와 행적을 ‘기술(傳)’하고 ‘찬양(贊)’함으로써 혜강 자신의 가치관과 함께 시대가 표방해야 할 이상적인 인물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명교를 초월하여 자연으로 돌아가자(越名教而任自然)’는 자신의 핵심명제를 구체적인 인물과 행적의 묘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찬양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 《聖賢高士傳贊》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산문사에 있어서 兩漢의 史傳散文을 계승하고 이 후 高士傳, 隱逸傳 등의 傳記類 작품 창작과 편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귀중한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聖賢高士傳贊》의 중요한 문헌적 가치와 함께 이에 수록된 隱士들의 자세한 행적과 기사를 통해 혜강이 제시하려는 인물론과 올바른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聖賢高士傳贊》번역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聖賢高士傳贊》은 온전하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 없어 원래 수록된 인물들의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戴明揚이 校注한 《嵇康集校注》(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62)에 다수의 인물행적이 정리, 수록되어 있어 이를 번역의 저본으로 삼았다.

2. 嵇康《聖賢高士傳贊》翻譯

1) 광성자(廣成子)²⁾

廣成子在崆峒³⁾之上。黃帝問曰：“吾欲取天地之精，以養萬物，爲之奈何⁴⁾？”

-
- 2) 전설에 나오는 옛날의 仙人이다. 崆峒山의 石室에서 진리와 도를 닦으면서 살았다고 한다. 나이가 1천 2백 살이 되었는데도 늙지 않았다고 하며, 黃帝가 그의 소문을 듣고 두 번이나 찾아와 至道와 治身의 요점을 물었다고 한다.
- 3) 崆峒은 崆峒山으로 道教의 발원지이며 道教의 주류였던 全真派의 聖地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崆峒은 또한 ‘空同’을 뜻하는 것으로, ‘虛空大同’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허공은 無私, 無欲하다는 뜻이고, 대동은 시비의 분별을 떠나 차별이 없어 만물을 하나로 보는 것이다.

廣成子蹶然而起曰：“至道之精，窈窈冥冥，無視無聽，抱神以靜。我守其一，以處其和⁵⁾。故千二百歲，而形未嘗衰。得吾道者，上爲皇，下爲王；失吾道者，上見光，而下爲土。吾將去汝入無窮之間，游無極之野，與日月參⁶⁾光，與天地爲常。”

【역문】 광성자는 공동산에 산다. 황제가 “나는 천지의 정수를 얻어 만물을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광성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이르길, “지극한 도의 정수는 어둡고 희미하여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에 고요함으로 그것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지극한 도를 지킴으로써 (음과 양의) 조화로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1200살이나 되었어도 형체가 조금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나의 이런 도를 얻게 되면 위로는 황제가 되고 그 다음으로는 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이런 도를 잃게 되면 위로는 단지 (해와 달의) 빛만을 보게 되며 아래로는 단지 흙으로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당신을 떠나 광활한 세계로 들어감으로써 한계가 없는 경지에서 노닐며 해와 달과 함께 그 빛을 함께 누리므로써 천지와 함께 영원히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양성소동(襄城小童)

黃帝將見大隗⁷⁾於具茨之山，方明爲御，昌寓參乘⁸⁾。黃帝曰：“異哉！請問天下。”小童曰：“予少遊六合之外，適有瞽病⁹⁾，有長者教予乘日之車，遊於襄城之

즉 황제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무위자연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 4) 황제가 광성자에게 至道之精을 물으려왔는데, 광성자는 황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이고 지배하고 싶은 것은 사물의 찌꺼기이기에, 황제를 至道의 이치를 알 자격이 없는 속물로 취급하고 거절한 바 있다.
- 5) ‘一’은 ‘渾一’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道를 가리킨다. 和는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룸을 뜻한다.
- 6) ‘參’은 ‘同’, 즉 ‘함께 하다’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 7) 《莊子·徐無鬼》에 ‘황제가 구자산에 대외를 만나러 갔다(黃帝將見大隗乎具茨之山)’는 기록이 있는데, 대외는 그 당시 신통한 능력을 지닌 신을 가리킨다.
- 8) ‘參乘’은 ‘驂乘’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수레를 탈 때 수레 뒤에 앉아 좌우를 호위하던 사람을 말한다.
- 9) 머리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고, 눈이 아득해지면서 안화(眼花)가 생기는 병으로, 주로 눈이

野，今病少損。將復六合之外；爲天下者，子奚事焉？夫爲天下亦奚異牧馬哉？去其害馬而已。”黃帝再拜，稱天師而還。贊曰，“奇哉難測，襄城小童，倦遊六合，來憩茲邦。”

【역문】 황제가 구자산에 대외를 만나러 가는데, 방명은 수레를 몰고 창우는 뒤에 앉아 호위를 하였다. 황제가 “기이하도다. 천하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는가?”라고 묻자, 소동이 답하길, “나는 어릴 적 사방천지를 돌아다니다가 눈이 침침해지는 병을 앓았습니다. 이 때 어르신 한 분이 수레를 타고 양성의 들을 돌아다니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 병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천지사방을 돌아다녔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말을 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말을 해롭게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황제는 인사를 하고 천하의 스승이라 말한 후 돌아갔다. 양성소동을 칭찬하며 말하길, “참으로 (지혜가 총만한 것이) 기이하여 예측할 수 없구나, 양성소동이여! 천지와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이곳에서 쉬고 있구나.”

3) 소부(巢父)¹⁰⁾

巢父，堯時隱人，年老，以樹爲巢，而寢其上，故人號爲巢父。堯之讓許由也，由以告巢父，巢父曰：“汝何不隱汝形，藏汝光？非吾友也。”乃擊其膺而下之。許由悵然不自得，乃遇清泠之水，洗其耳，拭其目，曰：“嚮者聞言負吾友¹¹⁾。”遂去，終身不相見。

【역문】 소부는 요 임금 시대의 은자인데, 나이가 들자 나무위에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서 잠을 자 사람들은 그를 소부라고 불렀다. 요 임금이 허유에게

호릿하고 어두워지는 안과 질환이다.

10) 고대 요임금 때의 隱者이다. 소부란 속세를 떠나 산 속 나무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요임금이 천하를 맡기고자 했지만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허유가 영천에서 귀를 씻고 있는 것을 소를 몰고 온 소부가 보고서 그러한 더러운 물은 소에게도 마시게 할 수 없다며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1) 고사전에는 “向聞貪言，負吾之友矣!”으로 되어있어서 ‘탐욕스러운 말’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천하를 넘기려하자 허유는 이를 소부에게 말했다. 그러자 소부는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몸을 숨기지 않고 빛남을 감추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허유의) 가슴을 치며 (그를) 내려 보냈다. 허유는 실망스러워 만족하지 못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만나 귀를 씻고 눈을 털어내며 말하길, “방금 전에 들은 (탐욕스런) 말로 내 친구를 버리게 되었다.” 고 하며 가더니 평생 만나지 않았다.

4) 허유(許由)¹²⁾

許由字武仲，堯、舜皆師之。與齧缺¹³⁾論堯，而去隱於沛澤¹⁴⁾之中。堯舜乃致天下而讓焉，曰：“十日并出，而燭火不息，其光也不亦難乎？夫子爲天子，則天下治，我由尸¹⁵⁾之，吾自視缺然。”許由曰：“吾將爲名乎？名者實之賓，吾將爲賓乎？”乃去，宿於逆旅之家，旦而遺其皮冠。巢父聞由爲堯所讓，以爲汙，乃臨池水而洗其耳。池主怒曰：“何以汙我水？”由乃退而遯耕于中岳、潁水之陽，箕山之下。許由養神，宅於箕阿，德真體全，擇日登遐¹⁶⁾。

【역문】 허유의 자는 무중으로 요, 순 임금의 모두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설 결과 요 임금이 천하를 자신에게 선양하겠다는 것을 논의한 후 그 자리를 떠나 패택에 숨어 지냈다. 요와 순 임금이 천하를 일으키고 선양하려 하면서 이르길, “10개의 해가 한 번에 떠올랐는데도 관솔불을 끄지 않으니 그 빛이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릇 당신께서 천자가 되시면 나라를 잘 다스리실 것인데 제가 여전히 시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라고 했다. 허유가 말하길, “나더러 장차 허울 좋은 이름을 위하라는 것입니

12) 허유는 許繇라고 하며 전설에 나오는 隱士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요임금이 천하를 물려 주려고 했지만 받지 않고 潁水 북쪽 箕山 아래로 숨었다. 요임금이 다시 불러 九州長으로 삼으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면서 潁水 강가에서 귀를 씻었다고 한다.

13) 설결은 요 임금 때 사람으로 허유는 설결을 스승으로 삼았다.

14) 지금의 江蘇省 沛縣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澤池이다.

15) ‘尸’는 중국의 고대 풍습 가운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죽을 자를 대신해 제사를 받는 사람이다. 여기서는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16) ‘遐’는 멀다. 장구하다는 뜻이다. ‘하늘이 무너지다’라는 ‘天崩’이나 ‘머나먼 곳으로 떠나다’라는 ‘昇遐’라는 말을 사용하여 왕의 죽음을 묘사했다.

까? 이름이란 실상(實相)의 손님과 같은데, 나더러 손님이 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가버리더니 역여의 집에 머물렀다가 아침이 되어 옷과 갓을 두고 가버렸다. 소부는 요 임금의 허유에게 천하를 선양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불결하다고 느껴 못에 이르자 귀를 씻고 눈을 털어냈다. 그러자 못의 주인이 화가나 말하길, “어찌 내 못을 더럽히는고?” 하자 허유는 물러나 영수에 은둔하며 밭을 갈며 지냈고, 그가 죽자 양성의 기산에 묻었다. 허유는 정신을 수양하고 기산의 언덕에서 살면서 덕을 기르고 몸을 온전히 하였으며, 날을 택해 머나먼 곳(하늘)에 오르기도 했다.

5) 양부(壤父)¹⁷⁾

壤父者，堯時人，年五十¹⁸⁾而擊壤于道中，觀者曰：“大哉帝之德也。” 壤父曰：“吾日出而作，日入而息，鑿井而飲，耕地而食，帝何德于我哉。”

【역문】 양부는 요 임금 때 사람으로 나이 50되던 해 길을 가다가 땅을 두드렸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크도다, 황제의 은덕이여!” 라고 말했다. 양부는 “나는 해가 뜨면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지면 쉬며 우물을 파 물을 마시고 땅을 일궈 먹고 사는데 황제께서는 나에게 무슨 은덕을 베풀었다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

6) 자주지부(子州支父)

子州支父者，堯、舜各以天下讓支父。支父曰：“我適有幽勞之病¹⁹⁾，方治之，未暇治天下也。” 遂不知所之²⁰⁾。

17) 전설에 나오는 遠古때 사람으로 堯임금 때의 賢者로 때 묻지 않은 온화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살았다고 한다.

18) 皇甫謐의 <高士傳>에서는 50이 아니라 80으로 기록되어 있다. (壤父者，堯時人也。帝堯之世，天下太和，百姓無事。壤父年八十餘，而擊壤於道中。)

19) 幽勞之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병에 걸린 지 오래되었고 고치기 힘든 병, 즉 고질병이라 해석할 수 있다.

20) 이 고사는 <莊子·讓王>편에 수록되어 있다. 자주지부는 “천하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그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데 하물며 일반사물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천하를 잊고

【역문】 자주지부는 요, 순 임금의 모두 천하를 지부에게 선양하려 했다. 지부는 “나에게 심한 고질병이 있는데 그걸 치료하느라 천하를 다스릴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7) 선권(善卷)²¹⁾

善卷者, 古之賢人也。舜以天下讓之, 卷曰: “予立宇宙之中, 冬則衣皮毛, 夏則衣絺葛。日出而作, 日入而息。逍遙天地之間, 何以天下爲哉?” 遂入深山, 莫知其所終。

【역문】 선권은 고대 현인이다. 순 임금이 천하를 선양하려하자 선권은 “나는 우주 가운데 서서 겨울에는 모피를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는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쉰다. 천지간을 소요하여 마음이 편안하니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는가?” 하고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8) 석호지농(石戶之農)²²⁾

石戶之農, 不知何許人, 與舜爲友。舜以天下讓之石戶, 夫負妻戴攜子以入海, 終身不返。

【역문】 석호지농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순 임금과 친구였다. 순 임금이 천하를 석호에게 선양하려 하자 남편은 (짐을) 등에 지고 아내는 머리에 이고 자식을 데리고 바다로 들어가 죽을 때 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로소 천하를 맡길 수 있다. (夫天下至重也, 而不以害其生, 又况他物乎! 唯无以天下爲者可以托天下也。) ”고 하였다.

21) 상고시대 무릉의 은사로 왕저에 살았다. 장자의 기록에 따르면, 요 임금이 그에게 도를 물었는데, 그를 임금이 앉는 방향으로 모시고 가르침을 받았다. 요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천하를 그에게 양보하려 하자 “천지간을 내 마음 가는데로 자유자재로 거닐 수 있거늘 하필이면 천하라 말인가!”라며 받지 않고는 깊은 산으로 숨어버렸다고 한다.

22) 《莊子·讓王》에 수록된 고사이다. 순임금이 천하를 그 친구인 석호지농에게 양보하려하니 석호지농은 “힘들여 수고하는 임금의 사람됨이 힘을 다하는 사람.” 이라고 하였다. 순임금의 덕이 아직 지극하지 않다고 여기 아버지는 지고 어미는 이고 자식을 끌고 바다로 들어가 몸이 마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舜以天下讓其友石戶之農, 石戶之農曰, “捲捲乎后之爲人葆力之士也!” 以舜之德爲未至也, 於是夫負妻戴, 攜子以入於海, 終身不反也。)

9) 백성자고(伯成子高)²³⁾

伯成子高，不知何許人也。唐虞時爲諸侯，至禹，復去而耕。禹往趨而問曰：“昔堯治天下，吾子立爲諸侯，堯授舜，舜授予，吾子去而耕，敢問其故何邪？”子高曰：“昔堯治天下，至公無私，不賞而民勸，不罰而民畏。今子賞而不勸，罰而不畏，德自此衰，刑自此作。夫子盍行，無留吾事！”侃侃然，遂復耕而不顧。

【역문】 백성자고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요순시대 때 제후였고, 우왕 때에는 다시 돌아가 농사를 지었다. 우왕이 그에게 가서 묻기를,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당신은 제후였습니다. 요가 순에게, 순이 다시 우에게 왕위를 물려주자 당신은 제후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연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자고가 이르길, “옛날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어 상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부지런했고 벌을 주지 않아도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임금께서 상을 주어도 백성들은 부지런하지 않고 벌을 주어도 무서워하지 않으니 덕이 이로써 쇠하였고 형벌이 이로써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가지 않으시는 겁니까? 내게 할 일이 남아있지 않군요.” 단호하게 다시 돌아가 농사일을 하며 (세상일을) 돌아보지 않았다.

10) 변수(卞隨) 무광(務光)

卞隨、務光者，不知何許人。湯將伐桀，因卞隨而謀，曰：“非吾事也。”湯遂伐桀，以天下讓隨，隨曰：“后之伐桀，謀于我，必以我爲賊也；而又讓我，必以我爲貪也。吾不忍聞。”乃自投桐水。又讓務光，光曰：“廢上非義，殺民非仁；無道之世，不踐其土，況于尊我哉？”乃抱石而沈廬水。

【역문】 변수와 무광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탕왕이 걸왕을 치려고 변

23) 唐堯때 사람으로 요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때 諸侯였다고 한다. 요임금이 舜에게 선양하고, 순임금이 禹에게 선양하자 제후를 사직하고 농사를 지었다. 우임금이 下風에 와서 治道를 물었더니 '이제부터 덕은 쇠하고 刑이 대신할 것이며 후세의 어지러움도 여기서 시작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수에게 계책을 논의하려 했더니, “내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 탕왕이 결왕을 공격하고 천하를 변수에게 선양하려 하니 수는 “왕께서 걸을 치려고 나와 의논했을 때에는 나를 흉악한 신하로 생각했기 때문이요, 걸을 이기고 나에게 선양하려는 것은 나를 탐욕스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동수에 몸을 던졌다. 탕왕이 또 다시 무광에게 선양하려 하자 무광은 “왕을 폐위시키는 것은 의롭지 못하고 백성을 죽이는 것은 어질지 못합니다. 도가 없는 세상에 그 땅을 밟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나를 천자의 자리에 앉히시렵니까?” 라고 말하며 돌을 끌어안고 여수에 몸을 던졌다.

11) 강시자(康市子)

康市子者，聖人之無欲者也。見人爭財而訟，推千金之璧於其旁，而訟者息。

【역문】 강시자는 성인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한 번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는 값비싼 옥을 그 옆에 버렸더니 사람들이 싸움을 그쳤다.

12) 소신직(小臣稷)

小臣稷者，齊人，抗厲²⁴⁾希古。桓公三往而不得見，公曰，“吾聞士不輕爵祿，無以易萬乘之主²⁵⁾；萬乘之主不好任義，無以下布衣之士²⁶⁾。”於是五往，乃得見焉。

【역문】 소신직은 제나라 사람으로 성품이 예로부터 드물게 고상하고 엄정하였다. 제환공이 세 번이나 찾아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자 제환공이 이르길, “나는 선비가 작위와 봉록을 가볍게 여기기 않으면 만승의 군주를 도울 수가

24) 인품이 고상하고 엄정함을 뜻함.

25) 전쟁 시 전차를 만 대나 동원할 수 있는 군주를 말하는데, 오로지 천자만이 가능했다. 제후는 千乘, 대부는 百乘을 동원할 수 있다.

26) 벼슬을 입는 서민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를 가리킨다.

없고 만승의 군주가 인의를 좋아하지 않으면 포의지사에게 검양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을 찾아간 후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었다.

13) 연자(涓子)

涓子, 齊人, 餌朮, 接食甚精。至三百年後, 釣於河澤, 得鯉魚中符。後隱於岩石山, 能致風雨, 告伯陽九仙法²⁷⁾。淮南王少得其文, 不能解其旨。

【역문】 연자는 제나라 사람으로 양생을 하며 정기를 먹고 산다. 삼백세가 된 후 강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배속에 부적이 있는 고기를 잡게 되었다. 이후 암석산에 은거하였는데, 비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백양구선법을 전수받았다. 회남왕이 그 문장을 조금밖에 얻지 못해 그 뜻을 풀이할 수 없었다.

14) 상용(商容)²⁸⁾

商容, 不知何許人也。有疾, 老子曰, “先生無遺教以告弟子乎?” 容曰, “將語子, 過故鄉而下車, 知之乎?” 老子曰, “非謂不忘故耶!” 容曰, “過喬木而趨, 知之乎?” 老子曰, “非謂其敬老耶! 容張口曰, 吾舌存乎?” 曰, “存。” 曰, “吾齒存乎?” 曰, “亡。” “知之乎?” 老子曰, “非爲其剛亡而弱存乎?” 容曰, “嘻! 天下事盡矣。”

【역문】 상용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상용이 병이 들자 노자는 “선생께서는 제자에게 알려줄 가르침을 남기지 않으십니까?”라고 했다. 이에 상용은 “너에게 알려주겠다. 고향을 지날 때 마차에서 내리는데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자 노자는 “고향을 잊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상용이 “큰 나무 밑을 지날 때 종종걸음으로 걷는 이유를 아느냐?”라고 묻자 노자는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상용은 입을 벌려 말하

27) 伯陽은 노자의 자이다. 구선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단지 신선이 될 수 있는 비법일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28) 중국 殷나라 紂王 때의 大夫이다. 주왕에게 직간하였다가 쫓겨났다. 周의 武王이 殷을 이기고 그의 집 앞을 지나며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

길, “내 혀가 있느냐?” 라고 묻자, 노자는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빨이 있느냐” 라고 묻자 노자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 상용은 “그 연유를 아느냐?” 라고 묻자, 노자는 “강한 것은 없어지고 약한 것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자, 상용이 이르길, “그렇다. 천하의 일이 다 이와 같으니라.”

15) 노자(老子)

良賈深藏²⁹⁾, 外形若虛; 君子盛德, 容貌若不足.

【역문】 어진 상인은 물건을 창고에 깊이 숨겨두어 겉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군자는 높은 덕을 가지고 있지만 외모는 부족한 듯 보인다.

16) 관령유희(關令尹喜)³⁰⁾

關令尹喜, 周大夫也, 善內學³¹⁾, 星辰、服食³²⁾. 老子西游, 喜先見氣³³⁾, 物色遮之, 果得老子. 老子爲著書, 因與老子俱之流沙³⁴⁾西, 服巨勝實, 莫知所

29) 어진 상인은 물건을 깊숙이 숨긴다는 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학덕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史記·老子韓非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날 공자가 노자를 찾아가 禮에 대하여 논할 때 고서 등을 인용하며 자기 생각을 피력하고 노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이야기는 옛 선인들이 써서 남긴 말이오. 그것이 산 인간에게 그대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오? 군자는 때를 얻으면 풍운을 타 세상에 나가고, 때를 얻지 못하면 쭉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이오. 어진 상인은 창고에 물건을 숨겨 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良賈深藏若虛), 군자는 덕이 있으면서도 용모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보이오(君子盛德容貌若愚). 그대도 그 교만함과 욕심과 길치레와 산만한 뜻을 버리시오.” 공자는 돌아가 제자들에게 ‘노자는 용처럼 정체를 알 수 없고 학덕은 심원하고 넓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 말은 노자처럼 학덕이 깊으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음을 비유한 말이다.

30) 관윤의 성은 윤이고 이름은 희이며 자가 공도이다. 함곡관의 관리(令)여서 관윤이라 불렀으며, 노자의 제자이기도 하다. 사마천의 사기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기록되어 있다. 노자는 오랫동안 주나라 수도에 머무르면서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는데 후에 주나라가 쇠하자 그곳을 떠났다. 함곡관에 이르자 관령유희는 말하길, “당신은 이제 은둔하려고 하시니 우리를 위해 책을 한 권 써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때 노자는 한 권의 책을 저술하고 상, 하 두 편으로 나누어 도덕에 관한 내용을 저술하였는데, 모두 5000여 자에 이르렀다.(關令尹喜曰：子將隱矣，彊爲我著書。於是老子洒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

31) 내학이란 참위의 일종으로 예언술을 말한다.

32) 복식이란 도가의 양생법으로 음식을 가려먹고 선약을 복용하는 것을 말한다.

33) 비범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신비한 기운이다.

34) 모래가 물처럼 흐른다는 사막지역으로 이곳을 건너가면 서역(인도)에 이른다고 한다.

終。

【역문】 관령윤희는 주나라 대부로서, 예언술과 점성학, 복식에 뛰어났다. 노자가 서쪽으로 유람할 때 윤희는 신비한 기운을 먼저 알아보고 일일이 사람들을 막아 세워 조사하여 노자를 찾아냈다. 노자는 윤희에게 책을 써 주었고 노자와 함께 사막을 건너 서역으로 갔으며 참깨 씨앗을 복용하였는데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17) 亥唐

亥唐, 晉人也, 高格寡素。晉國憚之, 雖蔬食菜羹³⁵⁾, 平公每爲之欣飽。公與亥唐坐, 有間, 亥唐出, 叔向³⁶⁾入, 平公伸一足曰, “吾向時與亥子坐, 腓痛足以痺, 不敢伸。”叔向怫然作色不悅。公曰, “子欲貴乎? 吾爵子! 子欲富乎? 吾祿子! 夫亥先生乃無欲也, 吾非正坐, 無以養之, 子何不悅哉!”

【역문】 해당은 진나라 사람으로 성품이 매우 고귀하고 평소 욕심이 없었다. 진나라가 해당을 경외하였기에 비록 거친 밥과 채소국이라 하더라도 매번 그것을 맛있게 배불리 먹었다. 진평공이 해당과 함께 앉았는데, 조금 있다가 해당이 나가고 숙향이 들어오자 평공은 한 다리를 펴며 말하길, “내가 줄곧 해당과 함께 앉아 있다가 종아리가 아파서 다리가 마비될 지경이었지만 펴 수가 없었다.” 숙향은 이에 벌컥 화를 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평공은 말하길, “당신은 존귀해지고 싶습니까? 내가 당신께 벼슬을 주겠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내가 당신께 녹봉을 주겠습니다. 해당선생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 내가 바로 앉아있지 않으면 해당선생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니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5) 소식채갱은 ‘거친밥과 채소국’이라는 뜻으로, 보잘 것 없는 음식을 말한다.

36) 춘추 시대 췌나라의 賢者이다. 성은 羊舌이고, 이름은 肸(昉) 또는 肸(肸)이며, 숙향은 子字다. 齊나라의 안영, 甯나라의 계찰, 鄭나라의 자산과 함께 당대의 대표적 현인으로 불렸다.

18) 항탁(項橐)³⁷⁾

孔子問項橐曰：“居何在？”曰：“萬流屋是也。”注曰：“言與萬物同流匹也。”大項橐與孔子俱學於老子，俄而大項爲童子，推蒲車而戲；孔子候之，遇而不識，問，“大項居何在？”曰，“萬流星是。”到家而知向是項子也，交之，與之談。

【역문】 공자가 항탁에게 “어디에 사십니까?” 라고 묻자, “만 가지 것들과 함께 살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는 곳 ‘천지만물과 함께 더불어 산다.’ 라는 뜻이다. 항탁은 공자와 함께 노자에게 배웠는데, 갑자기 항탁이 아이가 되어 포거를 밀며 놀고 있었다. 공자가 기다리다가 우연히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항탁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수많은 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가 항탁인 것을 알고 그와 함께 교분을 나누고 담소를 했다.

19) 광접여(狂接輿)³⁸⁾

狂接輿，楚人也，耕而食。楚王聞其賢，使使者持金百鎰聘之，曰：“願先生治江南。”接輿笑而不應，使者去。其妻從市來，曰：“門外車馬跡何深也？”接輿具告之。妻曰：“許之乎？”接輿曰：“貴富，人之所欲，子何惡之？”妻曰：“吾聞聖人樂道，不以貧易操，不爲富改行。受人爵祿，何以待之？”接輿曰：“吾不許也。”妻曰：“誠然，不如去之。”夫負釜甑，妻戴紅器，變姓名，莫知所之。嘗見仲尼，歌而過之，曰：“鳳兮鳳兮！何德之衰！往者不可諫，來者猶可追。後更名陸通，好養性，在蜀峨嵋山上，世世見之。”

【역문】 광접여는 초나라 사람으로 밭을 일구어 먹고 살았다. 초나라 왕은 그의 지혜로움을 듣고 사신에게 많은 금을 들려 보내 그를 모셔오고자 하여 이리기를, “원컨대 선생께서 강남지방을 다스려주소서.” 광접여는 웃으며 이에 대꾸하지 않자 사신은 돌아갔다. 그의 처가 시장에서 돌아와 “문 밖에 수레바퀴

37) 항탁은 춘추시대 노나라의 신동인데, 비록 7세이지만 공자는 그를 선생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청했다고 해서 후세에 항탁을 성공으로 받들었다.

38) 미친 사람 행세를 했던 까닭에 ‘광접여(미친 접여)’라 불렀다고 한다.

자국이 어찌 그리 깊은지요?” 라고 물으니 접여는 자초지종을 모두 말해 주었다. 처가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접여는 “부귀는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바인데 어찌 그대는 그것을 싫어하나요?” 라고 대답했다. 이에 처가 답하길, “나는 성인이 도를 즐거워하여 가난 때문에 지조를 바꾸지 않고 부를 위해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직과 봉록을 받으면 어찌 대하겠습니까?” 접여는 “나는 허락하지 않았소.” 라고 말하자, 처는 “정녕 그러하시다면 차라리 여기를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후 남편은 술과 그릇을 매고 처는 베를 가지고 성과 이름도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일찍이 공자를 만나 노래하며 그 옆을 지나가다가 “봉황이여, 봉황이여, 어찌 덕이 쇠하였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앞으로 다가올 일은 아직 쫓을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했다. 이 후 이름을 육통으로 바꾸고 섭생의 도를 좋아하였으며 세세토록 그를 축 아미산에서 볼 수 있었다.

20) 영계기(榮啓期)

榮啓期者，不知何許人也。披裘帶索，鼓琴而歌。孔子曰：先生何樂也？對曰：天生萬物，唯人爲貴，吾得爲人，一樂也；以男爲貴，吾得爲男，二樂也；人生有不全於襁褓，吾行年九十五矣，是三樂也。貧者士之常，死者民之終，居常以待終，何不樂也？

【역문】 영계기는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사슴 가죽을 몸에 걸치고 새끼띠를 매고 거문고를 타며 즐기고 있었다. 공자가 “선생께서는 어찌 그리 즐거워하시오?” 라고 묻자, 이에 노인은 “우선 하늘이 낳은 만물 중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인데 바로 그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즐겁고, 둘째로는 사람 중에서 남자가 귀한데 그런 남자로 태어났으니 즐겁고, 셋째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려서 죽는 수가 있는데 나는 이렇듯 나이 구십 살까지 살 수 있었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선비의 상태(常態)이고 죽음은 인생의 종착입니다.常に 처하여 종착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또한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21) 장저(長沮) 걸닉(桀溺)

長沮、桀溺者，不知何許人也，耦而耕。孔子過之，使子路問津焉。長沮曰：“夫執輿者爲誰？”子路曰：“是孔子。”“是魯孔丘歟？”曰：“是也。”“是知津矣。”問於桀溺，桀溺曰：“子爲誰？”曰：“仲由。”“孔丘之徒歟？”對曰：“然。”“與其從避人之士，豈若從避世之士哉？”耰而不輟。子路以告孔子，孔子憮然³⁹⁾曰：“鳥獸不可與同群，吾非斯人之徒歟⁴⁰⁾？”

【역문】 장저와 걸닉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이 두 사람은] 함께 짝을 이루어 밭을 갈고 있었다. 공자가 그곳을 지나다가 자로에게 나루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게 했다. 장저는 “저기 수레를 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묻자, 자로는 “공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노나라의 공자가 맞습니까?” 하자 “그렇습니다.” 라고 하였다. 장저는 “그 사람이 나루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걸닉에게 묻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중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공자의 제자이십니까?” 라고 묻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을 따르기 보다는 세상을 피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씨앗 덮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자로가 그 말을 전하자 공자는 이에 실망하며 “사람은 새나 짐승과는 함께 살 수 없으니 내가 어찌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24) 하소장인(荷篠丈人)⁴¹⁾

荷篠丈人，不知何許人也。子路從而後，問曰：“子見夫子乎？”丈人曰：“四體不動，五穀不分，孰爲夫子？”植其杖而耘。子路行以告。子曰：“隱者也。”使子路反見之，至則行矣。

39) 실망하고 낙심한 모양을 뜻한다.
 40) 원래 문장 끝에 ‘而與誰’ 세 글자가 있기에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라고 해석해야 한다.
 41) 《論語·微子》 편에 나오는 인물이다. 장저와 걸닉이 초야에서 밭을 갈고 있는데 공자가 유람을 하다가 길을 잃고 제자 자로를 시켜 길을 묻게 하자 이들은 자신의 뜻을 펴겠다는 평계로 세상을 피해 다니는 공자의 행태를 신랄하게 꾸짖었다.

【역문】 하소장인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자로가 따라 가다가 뒤로 쳐지게 되었는데, 이 때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노인에게 자로는 “당신께서는 혹시 우리 선생님을 보셨습니까?” 하자 노인은 “사지를 움직여 일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분별하지 못하는데 누가 당신의 선생입니까?” 라고 하며 지팡이를 땅에 꽂아놓고 땅을 일구었다. 자로는 가서 이 일을 고했더니 공자는 “은자로구나!” 하면서 자로를 다시 보내 그를 만나보게 하였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난 후였다.

25) 태공임(太公任)

太公任者，陳人。孔子圍陳，七日不火食。太公往弔之曰：“子幾死乎？夫直木先伐，甘井先竭。子其飾智以警愚，修身以明汙，昭昭如揭日月而行，故汝不免於患也。孰能削跡捐勢，不爲功名者哉？無責於人，人亦無責焉。”孔子曰：“善，辭其交遊，巡於大澤，入獸不亂群，而況人也。”

【역문】 태공임은 진나라 사람이다. 공자가 진나라에 포위를 당한 후 7일 동안 더운 음식을 먹지 못했다. 태공임은 그를 위로하며 말하길, “당신께서 배고파 죽을 지경이시죠? 무릇 곧은 나무는 먼저 베어지고 맛있는 우물물은 먼저 고갈되는 법입니다. 당신께서는 지식을 꾸며 우매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몸을 닦아 상대방의 더러움을 드러나게 하니 이는 마치 흰하게 해와 달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아 결국 화를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능히 지금의 행적과 권세를 버리고 공명을 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자는 “그렇도다! 교유를 끊고 큰물이 있는 곳(자연)에서 생활하며 짐승 속으로 들어가도 그 무리를 어지럽히지 않으니 하물며 사람들이야 어떠하겠는가!”

26) 한음장인(漢陰丈人)

漢陰丈人⁴²⁾者，楚人也。子貢適楚，見丈人爲圃⁴³⁾，入井抱甕而灌，用力甚多。子貢曰：“有機於此，後重前輕，名曰桔槔，用力寡而見功多。”丈人作色曰：

“聞之吾師，有機事者，必有機心⁴⁴⁾。機心存於胸，則純白不備。” 子貢愕然慚不對。有間，丈人曰：“子奚爲？” 曰：“孔丘之徒也。” 丈人曰：“子非博學以疑聖智，獨絃歌以買聲名於天下者乎？方且亡汝神氣，墮汝形體，何暇治天下乎！子往矣，勿妨吾事。”

【역문】 한음장인은 초나라 사람이다. 자공이 초나라로 가다가 한 노인이 밭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먼저 우물 안으로 물 향아리를 안고 들어가 물을 길어 밭에 뿌리는데 힘을 아주 많이 쓰고 있었다. 자공이 말하길, “물을 퍼내는 기구가 여기 있는데요. 뒤가 무겁고 앞이 가벼워 ‘길고(두레박)’라고 하는데, 힘을 적게 들고도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라고 하자 노인은 화난 표정을 하며 말하길, “나의 스승이 말씀하시길, 요령 있게 일을 하면 반드시 간교한 마음이 있게 되고, 간교한 마음이 가슴 속에 있게 되면 순수함을 갖출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공은 매우 놀라며 부끄러워하여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장인은 “당신은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라고 묻자, 자공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장인은 “당신은 박학다식하다하여 성인의 지식을 의심하고 홀로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연주해 천하에 이름을 드러낸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장차 간교한 마음을 없애고 형체를 버려야 하는데 [그런 당신이] 어찌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그러는지요? 가십시오. 내가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했다.

27) 피구공(被裘公)

被裘公者，吳人。延陵季子出遊，見道中有遺金，顧而謂公曰：“取彼金。” 公投籛，瞋目拂手而言曰：“何子之高視之卑？五月被裘而負薪，豈取金者哉？” 季子大驚，既謝而問其姓名。公曰：“吾子皮相之士，而安足語姓名也！”

42) ‘丈人’이란 옛날 노인에게 대한 통칭으로 사용되었기에 한음장인이라 바로 한음지방의 노인이라 뜻이다.

43) ‘밭에 채소를 심다’, ‘물을 주다’의 뜻이다.

44) 《莊子·天地》卷五下에 나오는 말인데, “有機械者必有機事, 有機事者必有機心.” 즉, 기심이란 편리함이나 효율을 지나치게 따르다보면 본성을 잃게 되어 결국 요령을 피우게 되는 사투한 마음을 가리킨다.

【역문】 피구공은 오나라 사람이다. 연릉계자가 외출하였다가 길거리에 누가 떨어뜨린 금을 보고 피구공을 돌아보며 말하길, “저 금을 주우시오.” 그러자 피구공은 삼을 던지고 눈을 부릅뜨고 손을 털며 말하길, “당신은 어찌하여 높은 곳에 거하면서 비천한 것을 바라보십니까? 5월에 갓옷을 입고 땀감을 짙어지고 있더라도 어찌 나더러 남이 떨어뜨린 금을 주우라고 합니까?” 계자는 크게 부끄러워하며 이름을 묻자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며 판단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이름을 알려 주리오?” 라고 했다.

28) 연릉계자(延陵季子)⁴⁵⁾

延陵季子名札，吳王之子，最少而賢。使上國還，會闔閭使專諸刺殺王僚，致國於札。札不受，去之延陵，終身不入吳國。初適魯，聽樂論衆國之風。及過徐，徐君欲其劍，札心許之；及還，徐君已死，卽解劍帶樹而去。

【역문】 연릉계자는 이름이 찰이라 하는데 오나라 왕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매우 현명했다. 계찰이 상국으로 사신가는 길에 합려는 전제를 시켜 오왕 료를 살해하고 나라를 일으켜 계찰에게 주려했다. 계찰이 이를 받지 않고 연릉을 떠나 죽을 때까지 오나라로 돌아오지 않았다. 노나라에 처음 갔다가 여러 나라의 노래를 듣고 각국의 풍습에 대해 논하였다. 서국을 지나가다가 서국의 임금 이 계찰의 칼을 매우 부러워하자 계찰은 칼을 주기로 마음속으로 걱정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서국을 들렀으나 서국의 임금이 이미 죽은 뒤라 칼을 풀어 나무에 걸어두고 갔다.

www.kci.go.kr

45) 중국 춘추 시대 吳王 壽夢의 아들이다. 이름은 季札, 수봉은 그가 현명하다는 것을 알고 양위하려 하였으나 사양하고 받지 않자, 연릉에 봉하고 연릉계자라 하였다.

29) 원헌(原憲) 46)

原憲味道，財寡義豐。棲遲韋門⁴⁷⁾，安賤固窮。絃歌自樂，體逸心沖。進應子貢⁴⁸⁾，邈有清風。

【역문】 원헌은 도를 채득한 자로 재물은 적었지만 원대한 뜻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여 웅색하고 초라한 집에서 살았지만 비천함을 편안하게 여기고 궁핍함을 고수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 스스로 즐거워하니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하였다. 자공이 집을 방문하여 응대하였는데, 아득하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30) 범려(范蠡) 49)

范蠡者，徐人也。相越滅吳，去之齊，號鴟夷子，治產數千萬。去止陶，爲朱公，復累巨萬。一曰：蠡事周，師太公，服桂飲水。去越入海，百餘年乃見於陶，一旦棄資財，賣藥於蘭陵，世世見之。

【역문】 범려는 서나라 사람이다. 월나라 재상이 되어 (월왕 구천을 도와) 오나라를 멸하였고, 제나라로 간 후에는 이름을 치이자라 하였는데, 생업을 다스리자 재산이 천만금을 헤아렸다. 도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주공이 되었는데, 또 다시 억만 금을 모았다. 범려는 주나라를 섬기고 태공망을 스승으로 삼았으며, 계피를 복용하고 물마시기를 좋아했다. 월나라를 떠나 바다로 들어가 백여 년

46) 원헌은 자가 자공(子貢)으로 공자의 제자이며 공자가 아끼는 72명의 賢人 중의 하나다. 원헌은 일생을 안빈낙도하며 세속과 섞이는 것을 싫어했다. 공자가 노나라 司寇로 있을 때 공자의 가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공자는 九百斛의 봉록을 주려고 했지만 원헌은 끝내 받지 않았다. 공자가 죽은 후 원헌은 위국에서 초막을 짓고 은거생활을 하면서 거친 밥과 나쁜 차를 마시면서 아주 청빈하게 살았다.

47) '가시나무를 엮어서 만든 울타리 또는 문'이란 뜻인데, 가난하고 웅색하며 초라한 집을 상징한다.

48) 위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자공(子貢)이 방문했을 때 그는 해진 의관(衣冠)이지만 단정하게 차려 입고 그를 맞았다. 자공이 곤궁하게 사는 것을 걱정하자 "도를 배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곤궁하다고 말하지, 나는 가난해도 곤궁하진 않다."고 대답하여 자공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한다.

49) 중국 춘추전국시대 월의 정치가, 경제학자, 군인으로 자는 소백(少伯)이다. 월 왕 구천을 섬기고 구천을 춘추오패에 설 수 있게까지 기여한 공로가 가장 크다.

이 지난 후 도나라에 나타났다. 그는 모은 재물을 다 버리고 난릉에서 약을 팔았는데 대대로 모두 그를 알아보았다.

31) 도양설(屠羊說)⁵⁰⁾

屠羊說者，楚人，隱於屠肆。昭王失國，說往從王。王反國，欲將賞說。說曰：“天王失國，說失屠羊；天王反國，說亦屠羊。臣之爵祿復矣，又何賞之有？”王使司馬子綦延之以三珪之位。說曰：“願長反屠羊之肆耳。”遂不受。

【역문】 도양설은 초나라 사람으로 도진에 은거하며 살았다. 소왕이 나라를 잃자 도양설은 왕을 따라갔다. 소왕이 나라를 되찾고 다시 돌아오자 도양설에게 상을 주려 하였다. 설은 말하길, “왕께서 나라를 잃게 되자 저도 양을 잡을 수 없게 되었고, 왕께서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자 저도 역시 양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인은 봉록을 다시 얻은 것과 닮이 없는데 무슨 상을 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왕은 더 높은 관원을 파견하여 도양설에게 삼공의 지위에 해당하는 높은 관직을 주려했다. 도양설은 “원컨대 이전대로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수락하지 않았다.

32) 시남의료(市南宜僚)⁵¹⁾

市南宜僚，楚人也，姓熊。白公爲亂，使石乞告之，不從。承以劍，而僚弄丸不輟。魯侯問曰：“吾學先王之道，勤而行之，然不免於憂患，何也？”僚曰：“君今能剝形洒心，而遊無人之野，則無憂矣。”

【역문】 시남의료는 초나라 사람으로 성은 웅이다. 백공승이 난을 일으키자 석걸이 시남의료를 그에게 천거하였지만 따르지 않았다. 백공승은 칼을 잘 다루었지만, 료는 구슬을 잘 다루어 그치지 않았다. 노나라 제후가 묻기를, “나는

50) 屠羊說은 초 소왕 때 시장에서 양고기를 파는 백정이어서 모두들 그를 屠羊說라 불렀다.

51) 宜僚는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시남에 살아 시남의료 또는 시남자로 불렸다. 石乞이 白公勝에게 宜僚를 천거하여 그에게 子西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린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끝까지 거절하였고 칼로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일찍이 선왕의 도를 배워 부지런히 이를 실천에 옮겼으나 우환을 면할 수가 없었소. 이유가 뭘까요?” 료는 “임금께서는 형체를 깨어버리고(엎매이지 말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은 후 사람이 없는 들판에서 노닐 수 있다면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33) 주풍(周豐)

周豐，魯人也，潛居⁵²⁾自貴。哀公執贄請見之，豐辭。使人問曰：“有虞氏未施信於民而民信，夏后氏未施敬於民而民敬，何施而得斯於民也？”對曰：“墟墓之間，未施哀於民而民哀；宗廟社稷中，未施敬於民而民敬。殷人作誓而民始叛，周人作會而民始疑。苟無禮儀忠信誠懇⁵³⁾之心以蒞⁵⁴⁾之，然雖固結之，民其可不解乎？”

【역문】 주풍은 노나라 사람으로 남몰래 숨어살며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다. 노나라 애공은 선물을 들고 그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는 사양하였다. (애공은 이에 그만두지 않고 사신을 주풍에게 보냈다.) 사신은 “우순은 백성에게 믿음을 교화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은 모두 그를 신임하였고, 하후씨는 백성들에게 공경함에 대해 교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은 오히려 그를 공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백성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이에 주풍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선왕의 폐허와 무덤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슬픔을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은 슬퍼할 것이요, 종묘사직에서 백성들에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도 백성들은 자연히 공경할 것입니다. 은나라 통치자들은 일찍이 맹세로써 백성들에게 약속했지만 백성들은 결국 그들을 배반하였고, 주대의 통치자들은 동맹을 맺어 백성들을 단결시키려 하였지만 백성들은 결국 그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위정자들이) 예의와 충심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설령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단결시킬 수

52) 남몰래 숨어 살다.

53) 질박하다 혹은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킨다.

54) 임금이 임하다, 곧 백성들을 다스리다, 함께 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는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 어찌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4) 안합(顔闔)

顔闔者，魯人也。魯君聞其賢，以幣聘焉。闔方服布衣，自飲牛，使者問曰：“此顔闔家邪？”曰：“然。”使者致幣，闔曰：“恐聽誤而遺使者羞。”使者反，復來求之，闔乃鑿坯而遁⁵⁵⁾。

【역문】 안합은 노나라 사람이다. 노나라 애공이 그의 현명함을 듣고 많은 예물을 보내 그를 모셔오게 했다. 안합은 배옷을 입고 목소 소에게 물을 먹고 있었는데, 사신이 “여기가 안합의 집인가요?” 라고 묻자 안합은 “그렇소.” 라고 대답했다. 이에 사신은 예물을 주려고 하자 안합은 “아마도 내가 잘못 들었나 보오. 그러나 사신이 죄를 지을까 염려되니 좀 더 분명히 알아보시오.” 사신이 돌아갔다가 다시 청하기 위해 왔더니 안합은 벽을 뚫고 도망가 은둔해 버렸다.

35) 단간목(段干木)

段干木者，治清節，遊西河，守道不仕。魏文侯就造其門，干木踰垣而避之。文侯以客禮出，過其廬則式，其僕問之，文侯曰：“干木不趣勢，隱處窮巷，聲馳千裏，敢勿式乎？”文侯所以名過齊桓公者，能尊段干木敬卜子夏友田子方也。

【역문】 단간목은 청렴하고 지조가 있는 자로 서하를 유람하면서 도를 지키며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다. 위 문후가 그의 집 대문 앞까지 갔으나 단간목은 담장을 넘어 피해 버렸다. 문후는 손님의 예로 대하며 나갔고 그의 집을 지날 때에는 격식을 차렸는데, 시종이 그 연유를 묻자, 문후는 “단간목은 권세를 좇지 않으면서 빈궁한 곳에 거하여 그의 명성이 천리까지 퍼져있으니 어찌 예로

55) 《淮南子·齊俗訓》에 나오는 고사이다. 안합은 전국 시대魯나라 사람으로 隱士로 알려져 있다. 노나라 임금이 그가 어질다 하여 使者를 보내 초빙하려 하자 “그대가 잘못 들은 것 같으니 다시 확인해 보아라(君恐聽聽不若審之)”고 말해 사자를 돌려보낸 뒤 뒷담을 뚫고 달아났다고 한다(“顔闔鑿墻”).

써 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위문후가 그 명성이 제환공을 앞지르는 까닭은 능히 단간목을 받들고 복자하를 존경하며 전자방을 벗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36) 장주(莊周)

莊周少學老子，梁惠王時爲蒙縣漆園吏，以卑賤不肯仕。楚威王以百金聘周，周方釣於濮水之上，曰：“楚有龜，死三千歲矣，今巾笥而藏之於廟堂之上。此龜寧生而掉尾塗中耳。子往矣！吾方掉尾於塗中。”後齊宣王又以千金之幣迎周爲相，周曰：“子不見郊祭之犧牛乎？衣以文繡，食以芻菽，及其牽入太廟，欲爲孤豚，其可得乎？”遂終身不仕。

【역문】 장주는 어릴 적부터 노자를 공부하였고, 양 혜왕 때 몽현의 관리로 일했을 뿐, 이 후 비천하다 여겨 관직에 오르길 꺼려했다. 초나라 위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장주를 등용하려 하였는데, 장주는 마침 복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가 이르길, “초나라에 거북이가 있었는데, 죽을 때 삼천 살이었고, 지금은 화려한 휘장에 싸여 사당에 잘 모셔져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차라리 살아서 진흙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돌아가시오! 나도 진흙 속에 꼬리를 묻으려 하오.” 제 선왕이 또 천금을 가지고 장주를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장주는 말하길, “왕께서는 제사 때 사용되는 소를 보지 않으셨소? 화려하게 수놓은 옷을 입고 풀과 콩을 먹으며 화려한 사당에 들어갈 때쯤에야 고독한 돼지가 되기를 바라는데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리하여 장주는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37) 여구선생(閻丘先生)

閻丘先生，齊人也。齊宣王獵於社山，社山父老十三人，相與勞王。王賜父老衣服，父老皆答謝，先生獨不拜。王曰：“少也，復賜無徭役。”先生復獨不拜。王曰：“父老幸勞之，故答以二賜。”先生獨不拜，何也？閻丘曰：“聞王之來，望得壽得富得貴於大王也。”王曰：“死生有命，非寡人也。倉廩備災，無以富先生；

大宮無闕，無以貴先生。” 閻丘曰：“非所敢望。願選良吏，平法度，臣得壽矣；賑乏以時，臣得富矣；令少敬長，則臣得貴矣。”

【역문】여구선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제 선왕이 사산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사산에 살고 있는 13명의 노인들이 선왕을 찾아와 문안하였다. 왕은 이들에게 옷을 하사하였고, 이들은 모두 감사함을 표했지만 여구선생만 유독 답례를 하지 않았다. 왕이 이르길,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요역을 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만은 답례를 표하지 않았다. 왕은 “백성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 답례로 두 가지 상을 내렸는데도 선생은 인사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묻자, 여구는 “왕께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우리가 온 것은 왕으로 인해 우리들이 장수하고 부유하며 귀하게 여김을 받고자 함입니다.” 라고 답했다. 왕은 이에 대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으나 그것은 재해 방지용이니 선생을 부요하게 할 수 없고, 궁에는 지금 자리가 없으니 선생을 귀하게 모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여구는 “그런 것은 내가 감히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께서 어진 관리를 등용하고 법도를 정비하신다면 저는 천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백성이 어려울 때 잘 구제하신다면 저 역시 부귀해질 것이며, 젊은이들이 노인을 공경하게 한다면 저 또한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38) 안축(顔歎)

顔歎者，齊人也。宣王見之，王曰：“歎前！” 歎曰：“王前！” 王不悅。歎曰：“夫歎前爲慕勢，王前爲趨士。” 王作色曰：“士貴乎？” 歎曰：“昔秦攻齊，令曰，敢近柳下惠壘樵者，罪死不赦。有能得齊王頭者，封萬戶。由是觀之，生王之頭，不如死土之壘。” 齊王曰：“願先生與寡人遊，食太牢⁵⁶⁾，乘安車。” 歎曰：“願得蔬食以當肉，安步以當輿，無罪以當貴，清淨以自娛。” 遂辭而去。

【역문】안축은 제나라 사람이다. 제 선왕이 그를 만난 후 왕이 “축은 앞으로

56) 제사 때 바치는 소나 양, 돼지로서, 최고의 음식을 가리킨다.

나오라!” 했더니, 안축은 “왕께서 앞으로 나오시오!”라고 말했다. 이에 왕은 매우 불쾌해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축은 “대저 제가 앞으로 나아가면 권세를 흠모하는 것이요, 왕께서 앞으로 나오시면 선비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다. 왕이 화가 나 얼굴을 붉히며 “선비가 그렇게 귀한가?” 라고 묻자 축은 “옛날 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할 때, 영을 내려 감히 유헤의 무덤에서 가깝게 나무를 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죽음으로 그 죄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제왕의 머리를 얻을 수 있는 자는 만호의 봉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선왕의 머리는 죽은 선비의 무덤만 같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 제왕이 “선생께서는 나와 함께 지낸다면 좋은 요리를 먹고 편안한 수레를 탈 것이오.” 라고 하자 축은 “거친 것을 먹더라도 고기를 먹는 것과 같고 편안하게 걷는 것이 수레를 타는 것보다도 같습니다. 죄가 없으면 귀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깨끗하고 곧은 마음이면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하며 사양하며 떠났다.

39) 노련(魯連)⁵⁷⁾

魯連好奇偉倜儻。嘗遊趙，秦圍邯鄲，連難新垣衍以秦爲帝，秦軍爲卻⁵⁸⁾。平原君欲封連，連三辭不受。平原君又置酒，乃以千金爲連壽。連笑曰：“所貴天下之士者，爲人排患釋難而無取也；卽有取之，是商賈之事爾，不忍爲也。”及燕將守聊城，田單攻之不能下，連乃爲書射城中，遺燕將；燕將見書，泣三日，乃自殺；城降，田單欲爵連，連曰：“吾與於富貴而詘於人，寧貧賤輕世而肆意。”遂隱居海上，莫知所在。

【역문】 노련은 뜻이 크고 절개가 곧은 사람이다. 조나라에 유람을 갔다가 진나라가 한단지역을 포위하자 노련은 신원연이 진나라 (소왕)을 황제에 등극

57) 춘추전국시대 齊나라가 고향인 노련은 선비의 본분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긴 사람이다.

58) 위나라 사신 신원연이 진나라 소왕에게 황제가 될 것을 주청하자 그 이해관계를 따져 말하며 결코 진나라가 황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면서 조나라 평원군을 설득하였으며, 때마침 위나라 구원병이 오자 진나라 군사가 퇴각하였다.

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자 진나라 군대는 퇴각하였다. 평원군은 노련에게 벼슬을 내렸지만, 노련은 세 번이나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평원군은 또한 술상을 차려놓고 많은 돈을 주어 노련을 치하하려 했다. 이에 노련은 웃으면서 말하길, “천하의 선비가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는 까닭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없애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지만 대가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대가를 취한다면 그것은 상인의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연나라 장수가 요성을 시수하자 전단은 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하니 이에 노련은 편지를 써 화살에 묶어 연나라 장수에게 보냈다. 연나라 장수가 서신을 보고 삼일을 울더니 자살하고 말았다. 성이 함락되어 전단이 노련에게 벼슬을 주려하자 연은 말하길, “나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되게 하느니 차라리 가난하고 천하게 살면서 세상의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사는 편이 좋겠다.” 라고 하였다. 후에 바닷가에 은거하였는데, 그의 소재를 아는 이가 없었다.

40) 어릉중자(於陵仲子)⁵⁹⁾

於陵仲子，齊人，常歸省母，人饋其兄鵝，仲子嘖蹙曰：“惡用是鵝鵝者哉！”

【역문】 어릉중자는 제나라 사람으로 늘 돌아와 모친을 보살폈다. 어떤 사람이 그의 형에게 기러기를 선물했는데, 중자는 이마를 찌푸리며 불쾌한 듯이 말하길, “꽤 백거리며 우는 것을 도대체 무엇에 쓰려고 하는가?”

41) 어부(漁父)⁶⁰⁾

59) 陳仲子是 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이름이 終이며 오릉이란 곳에 은거했기 때문에 陵子라고도 불렀다. 초나라 왕이 그가 현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상으로 등용하려 황금을 보내 초청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가난하지만 마음 편한 평민생활을 즐기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라고 권하자 아내와 함께 시골로 도망가 다른 사람의 밭을 갈고 정원에 물을 주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60) 漁父는 초(楚)나라 사람으로, 초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이름을 숨긴 채 강가에 숨어 낚시질을 하였다. 楚 頃襄王때 三閭大夫를 지냈던 屈原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추방당한 후 강남을 떠돌다가 어부를 만나 '은 세상이 혼탁한데 나만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기 때문에 쫓겨난 것(舉世混濁而我清，衆人皆醉而我獨醒，是以見放)'이라

42) 전성(田生)

田生，菅床茅屋⁶¹⁾，不肯仕宦，惠帝親自往，不出屋。

【역문】 전성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집에 기거하며 벼슬을 하지 않았는데, 혜제가 친히 그가 사는 곳을 방문했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43) 하상공(河上公)⁶²⁾

河上公，不知何許人也，謂之丈人。隱德無言，無德而稱焉，安丘先生等從之，修其黃老業。

【역문】 하상공은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장인이라 불렸다. 덕을 품은 자는 말이 없고 덕이 없는 자는 말을 한다고 했으며, 안구선생 등이 그를 따라다니며 황로술을 연마했다.

44) 안구망지(安丘望之)⁶³⁾

安丘望之，字仲都，京兆長陵人。少持老子經，恬淨不求進宦，號曰安丘丈人。長靈安丘生病篤，弟子公沙都來省之。與安共至於庭樹下，聞李香開目，見雙赤李著枯枝，自墮掌中，安食之，所苦盡愈。

【역문】 안구망지의 자는 중도로서 경조 장릉 사람이다. 어릴 적부터 노자도 덕경을 가지고 다니며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사심이 없어 관직에 나아감을 구하지 않았으니 안구장인이라 불렸다. 안구생의 병이 위중해지자 제자 공사가 그를 살피러왔다. 안구생과 함께 정원의 나무 아래로 갔는데 배의 향기에

하며 역을함을 토로하였다. 이에 어부는 '창랑의 물 맑거든 내 갓 끈 씻을 수 있고, 창랑의 물 흐리거든 내 발 씻을 수 있네(滄浪之水清，可以濯吾纓。滄浪之水濁，可以濯吾足。)'라고 말하면서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61) '골풀로 만든 평상과 띠로 엮은 지붕'이라는 뜻으로, 매우 누추하고 초라한 거처를 일컫는 말이다.

62) 하상공은 "河上丈人"이라고도 하는데, 제나라 琅琊 일대의 방사이다. 황로술의 집대성자이기도 하다. 하상공은 중국역사상 진정한 은자라 일컬음을 받았으며, 노자 도덕경에 주를 달아 《河上公章句》를 편찬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전파되었으며 영향력이 가장 큰 주해서로 알려져 있다.

63) 安丘生이라고도 불린다.

눈을 떠 붉은색 배가 마른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배 하나가 손안으로 떨어져 그것을 먹으니 아픈 것이 전부 나왔다.

45) 사마계주(司馬季主)

司馬季主者，楚人也，卜於長安。漢文帝時，宋忠賈誼爲太中大夫，誼曰：“吾聞聖人不居朝廷，必在巫覡，試觀卜數中。”見季主閑坐，弟子侍而論陰陽之紀。二人曰，“觀先生之狀，聽先生之辭，世未嘗見也。尊官高位，賢者所處，何業之卑，何行之汙？”季主笑曰：“觀大夫類有道術，何言之陋？夫相引以勢，相導以利，所謂賢者，乃可爲羞耳。夫內無饑寒之累，外無劫奪之憂，處上而有敬，居下而無害，君子道也。卜之爲業，所謂上德也。鳳凰不與燕雀爲群；公等喁喁，何知長者？”二人忽忽不覺自失，後不知季主所在。

【역문】 사마계주는 초나라 사람으로 장안에서 점을 쳤다. 한 문제 때 송충과 가의는 태중대부였는데, 가의가 “나는 성인이 조정에 머물지 않고 무당집에 머물며 점괘를 본 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계주가 한가롭게 앉아 제자의 시중을 받으며 음양의 법칙에 대해 논하는 것을 보았다. 이에 두 사람은 “선생의 모습을 보고 말을 들어보니 일찍이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귀하고 높은 자리는 어진이가 처할 곳인데, 어찌 이렇게 비천한 일을 하고 더러운 곳을 다니십니까?” 라고 하니 계주는 웃으며 말하길, “대부들을 살펴보니 제법 도술을 갖추고 있는듯한데 어찌 그와 같은 비루한 말을 합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현자는) 권세로써 서로 이끌어주며 이익을 미끼로 서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현자는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장자가 말하길) 군자는 안으로 굽주리거나 추위에 떨 염려가 없고 밖으로는 약탈당할 걱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존경을 받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해를 입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군자의 도인 것입니다. 지금 점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들은 덕이 매우 많은 자들입니다. 봉황은 제비나 참새 따위들과 무리를 이루지 않습니다. 두 대부들께서는 그렇게 세속에 부화뇌동하시니 어찌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에 두 사람은 갑자기 망연자실하였으니 후에

그 누구도 계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다.

46) 동중서(董仲舒)⁶⁴⁾

47) 사마상여(司馬相如)⁶⁵⁾

司馬相如者，蜀郡成都人，字長卿。初爲郎，事景帝。梁孝王來朝，從遊說士鄒陽等，相如說之，因病免遊梁。後過臨邛，富人卓王孫女文君新寡，好音，相如以琴心挑之，文君奔之，俱歸成都。後居貧，至臨邛買酒舍，文君當爐，相如著犢鼻褌，滌器市中。爲人口吃，善屬文。仕宦不慕高爵，常托疾不與公卿大事，終於家。其贊曰：長卿慢世，越禮自放。犢鼻居市，不恥其狀，託疾避官，蔑此卿相，乃賦大人，超然莫尚。

【역문】 사마상여는 촉 지방 성도사람으로 자는 장경이다. 처음에는 낭이랑 벼슬을 하며 경제를 섬겼다. 양효왕이 조정에 들어오자 책사인 추양 등도 함께 따라왔고 사마상여는 이들을 좋아하게 되어 병을 핑계로 관직을 그만두고 양나라로 여행을 갔다. 후에 임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 부호인 탁왕손에게 과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딸 탁문군이 음악을 좋아하여 상여는 거문고로 마음을 꼬드겨 탁문군과 함께 도망쳐 성도로 돌아갔다. 후에 가난하게 살아 임강으로 돌아가 주막을 사서 술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탁문군에게 직접 술시중을 들게 했으며, 상여 자신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바지를 입고 시

64) 중국 前漢 시대의 公羊學者로 信都國 廣川縣(河北)에서 출생했다. 景帝 때 春秋 박사가 되고, 武帝 때 儒家로 사상계를 통일할 것을 주장, 국가의 통치이념이 기초를 만들었다. 인품이 청렴하고 정직한 동중서는 武帝 때 賢良對策으로 百家를 몰아내고 儒術만을 존중할 것을 주장하였다. 《公羊春秋》를 토대로 陰陽五行 및 法家, 道家 등의 사상을 융합하여 儒家의 윤리를 三綱五倫으로 개괄한 바 있다.

65) 서한의 문학가로 자는 長卿으로 촉군 成都 사람이다. 원래 이름은 犬子였으나 전국 때 蔣相如를 존경하여 相如로 이름을 바꿨다. 賦를 잘 지어 景帝에 의해 武騎常侍로 있다가 梁孝王이 문학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양나라로 갔으나 양효왕이 얼마 있지 않아 죽자 고향으로 돌아가 가난하게 살았다. 臨邛의 都亭직에 있을 때 우연히 알게 된 卓王孫의 딸 卓文君과 함께 成都로 도망쳐 살았다. 이 때 쓴 <子虛賦>가 한 무제에 인정을 받아 郎이라는 벼슬을 제수 받았다.

장에서 술잔을 닦았다. 상여는 말을 더듬었지만 문장을 잘 지었다. 벼슬을 하는데 높은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아 병을 핑계로 높은 관리와 큰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집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를 칭찬하기를, “사마상여는 세상을 잘 보고 예의범절을 무시하며 자유분방했다. 스스로 아무 것이나 입고 시장에서 살면서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병을 핑계로 관직을 그만두고 지위가 높은 관리를 멸시했으며, 부를 잘 지어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다네.”

48) 한복(韓福)

韓福者，以行義修潔⁶⁶，漢昭帝時以德行徵，病不進。元鳳⁶⁷元年，詔賜帛五十匹，遣長吏時以存問，常以八月賜羊酒，不幸死者，賜復衾⁶⁸一，祠以中牢。自是至今爲徵士之故事。福終身不仕，卒於家。

【역문】 한복은 의를 행하고 고결하여 한 소제 때 그의 덕행이 높아 등용하려 했지만 병이 들어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다. 원봉 원년 황제는 (병으로 관직에 나아가지 못한 한복을 불쌍히 여겨) 그를 위로하고자 비단 50필을 하사하고 관리를 보내 안부를 묻게 하고, 매년 8월이 되면 양고기와 술을 하사하였으며, 불행하게 죽은 자에게는 비단을 하사하여 견고하게 잘 싸서 제사지내도록 하였다. 이때부터 이것은 인재를 구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한복은 종신토록 출사하지 않았으며 집에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49) 반사(班嗣)

班嗣，樓煩人也。世在京師，家有賜書，內足於財。好老莊之道，不屑榮宦，恆居山，父黨揚子雲以下，莫不造門。桓君山從借《莊子》，嗣報曰：“若莊子者，絕聖棄智，修性保身，清虛淡泊，歸之自然；釣漁於一壑，則萬物不幹其志；棲遲於一丘，則天下不易其樂。今吾子關仁義之羈絆，系聲名之韁鎖，伏孔

66) 인품이 고상하고 정결함을 뜻함.

67) 서한 소제의 두 번째 연호로서, 기원전 80년에서 75년까지를 말한다.

68) 솜을 넣은 옷으로 장례 때 입는 옷이다.

氏之軌躅，馳顏、閔之極藝，既系轡於世教矣，何用大道爲自炫耀也？昔有學步邯鄲者，失其故步，匍匐而歸耳，恐似此類，故不進也。”其行己持論如此，遂終於家。

【역문】 반사는 루변 사람이다. 대대로 경사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 집에 책이 많았으며 돈이 많아 부유했다. 노장의 도를 좋아하여 부귀영화와 관직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며 늘 산에 살면서 양옹, 환담 등과 교류하였다. 환담이 그에게 장자를 빌리려고 하자 반사는 이에 답하길, “장자는 성스러운 것과 지혜로운 것을 완전히 끊고 없애며 자신의 성정을 기르고 몸을 보호하며 마음을 비우고 무욕한 생활을 하여 자연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으니 만물이 그 뜻을 주장하지 않고 언덕에서 쉬를 구하니 천하의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선생께선 인과 의의 구속에 간혀있고 명성의 굴레에 매여 있으며 공자의 발자취에 엮드리고 공자의 제자인 안연과 민손의 훌륭한 숨씨를 좇으며 세상의 가르침에 묶여있는데 어찌 큰 도로써 스스로를 빛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단의 땅에서 새로운 걸음걸이를 배우려는 자가 있었는데,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해) 이전의 걸음걸이도 잊어버리게 되어 기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장자를 공부하려는 것은) 이와 같을 것이니 그 학문 들어가지 마십시오!” 반사의 행동과 이론이 이와 같으니 결국 집에서 생을 마쳤다.

50) 장후(蔣詡)

蔣詡字元卿，杜陵人，爲兗州刺史。王莽爲宰衡，詡奏事到灞上⁶⁹⁾，稱病不進。歸杜陵，荊棘塞門，舍中有三徑⁷⁰⁾，終身不出。時人諺曰：“楚國二翼，不如

69) 장안 부근의 군사요충지이다.

70) ‘三徑遺芳’이란 정원의 꽃향기가 남는다는 뜻이다. 옛날 중국설화에 장후라는 도사는 나라에서 중히 쓰려고 하였으나 마다하고 산중으로 은거하였다. 그 후에 양중과 구중의 두 도사가 뒤따라 이 산에 와서 은거하게 되었다. 이들 세 도사들은 뜻이 서로 통해서 기약 없이 산 밑 한 바위로 모여서 함께 세상사를 토론하였다. 이런 일로 수년이 되자 각각 초막에서 바위까지 작은 길이 세 갈래 길(삼경)이 생긴 것이다. 각 도사들은 자기 움막 근처에 한 도사는 소나무 숲을, 다른 한 도사는 대나무 숲을, 또 다른 한 도사는 난을 많이 심었다

杜陵蔣翁。”

【역문】장후의 자는 원경이고 두릉 사람으로 연주자사를 지냈다. 왕망이 섭정을 하자 장후는 상소문을 올리고 파상으로 가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두릉으로 돌아온 후 두문불출하였는데, 집에 세 가닥의 길만을 만들고 평생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초나라의 유명한 고사인 공사와 공성은 두릉에 사는 장후의 두 친구보다 못하네.” 라고 자랑했다.

51) 구중(求仲) 양중(羊仲)

求仲羊仲二人，不知何許人，皆治車爲業，挫廉⁷¹⁾逃名。蔣元卿之去兗，還杜陵，荊棘塞門。舍中有三徑，不肯出，唯二人從之遊，時人謂之二仲。

【역문】구중, 양중 두 사람은 모두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다만 모두 수레고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으며, 능력이나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명성을 피해 살았다. 장원경은 연주를 떠나 두릉으로 돌아가 아무와도 왕래하지 않고 두문불출하였다. 집에 세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나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유독 두 사람이 그를 따라 교제를 나누었는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二仲’이라 불렀다.

52) 상장(尙長)

尙長字子平，禽慶字子夏，二人相善。慶隱避不仕王莽。長通《易》、《老子》，安貧樂道，好事者更饋遺，輒受之，自足還餘，如有不取也。舉措必於中和。司空王邑辟之連年，乃欲薦之於莽，固辭乃止。遂求退。讀《易》至《損益》卦，喟然歎曰：“吾知富貴不如貧賤，未知存何如亡爾。爲子嫁娶畢，敕家事斷之，勿複相關，當如我死矣。”是後肆意，與同好遊五岳名山，遂不知所在。

【역문】상장은 자가 자평이고 금경은 자가 자하인데 두 사람은 서로 친했다.

고 한다. 후세 사람들은 이 삼경을 고결한 성품을 지닌 은사가 사는 곳이라 하였다.

71) ‘挫’는 ‘꺾다’, ‘부러지다’의 뜻이며, ‘廉’은 ‘날카롭다’, ‘예리하다’의 뜻이기에, ‘挫廉’은 ‘不露鋒銳’, 즉 ‘특출한 능력이나 재주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다’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경은 은거하여 왕망 왕조에 출사하지 않았다. 주역과 노자에 정통하였으며, 안빈낙도하여 호사가들이 먹을 것을 보내 주어 늘 그것을 받았는데, 스스로 족한 만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돌려주었고, 혹여 남더라도 이를 취하지 않았다. 행동은 반드시 중화의 입장을 취하였다. 대사공인 왕유이 계속하여 그를 초빙하여 왕망에게 천거하려고 왔지만, 사양하기를 고수하자 그만 두었다. 그리고는 물러나기를 청하였다. 주역의 손, 익 패를 읽다가 갑자기 탄복하며 말하길, “나는 부유하고 귀한 것이 가난하고 천한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겠지만 삶이 어떻게 죽음과 같은지 여전히 모르겠다.” 아들과 딸을 모두 결혼시킨 후 집안 일 하는 것을 그만두면서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여기라고 했다. 이 후 마음 내키는 대로 지기(금경)와 함께 오악의 명산을 유람하였는데, 그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53) 왕진(王眞)⁷²⁾ 이소공(李劭公)

逢貞字叔平，杜陵人。李邵公，上邵人，貞世二千石，王莽辟不至，嘗爲杜陵門下椽，終身不窺長安門，但閉戶讀書，未嘗問政，不過農田之事。邵公，王莽時辟地河西，建武中，竇融欲薦之，固辭，乃止。家累百金，優游自樂。

【역문】逢貞은 자가 숙평이고 두릉 사람이다. 이소공은 상소 사람으로 대대로 2천 석의 녹봉을 받는 가문의 사람이다. 왕망이 그를 등용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일찍이 두릉의 문하에서 하급관리직에 있으면서 평생 동안 장안에서 관직에 오를 기회를 엿보지 않았다. 오로지 문을 걸어 잠그고 책만 읽으며 한 번도 정치에 대해 묻지 않고 다만 농사일만 돌보았다. 소공은 왕망 때 하서 지역에서 관리로 선발되었고, 건무시기에는 두옹이 그를 천거하였지만 한사코 거절하여 그만두었다. 집에 돈이 많아 놀러 다니면서 스스로 즐겼다.

72) 왕진은 양생가로서 양생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사람 중 하나이다. 《後漢書·方術列傳》에 보면 “왕진의 나이 이제 막 일 백세이다. 그런데 얼굴에서 광택이 나며 50살도 채 못되어 보인다(王眞年且百歲，視之面有光澤，似未五十者。)”라고 기록되어 있다.

54) 설방(薛方)⁷³⁾

薛方, 齊人, 養德不仕。王莽安車迎方, 因謝曰: “堯舜在上, 下有巢許。今明王方欲隆唐虞之德, 亦由小臣欲守箕山之志。” 莽悅其言, 遂終於家。

【역문】 설방은 제나라 사람으로 덕을 기르며 출사하지 않았다. 왕망이 수레를 타고 설방을 맞이하려 했지만 이를 사절하면서 말하길, “요순임금이 위에 있으니 아래에는 소부와 허유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왕께서 현명하시어 요순의 덕을 일으키고자 하니 소인은 그저 기산의 뜻을 지키고자 합니다.” 왕망은 이 말에 매우 기뻐하였으며, 그는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였다.

55) 공승(龔勝)

龔勝, 楚人, 王莽時遣使徵聘, 義不仕二姓, 遂絕食而死。有老父⁷⁴⁾來吊, 甚哀。既而曰: “嗟乎! 薰以香自燒, 膏以明自銷。龔先生竟夭天年, 非吾徒也!” 趨而出, 終莫知其誰也。

【역문】 공승은 초나라 사람으로 한번은 왕망이 관리를 보내 그를 모셔오게 했지만 공승은 ‘의인은 두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며 음식을 끊고 죽었다. 한 늙은이가 조문하러 왔다가 매우 슬퍼하며 “아! 향초는 냄새를 풍기기에 스스로 타버리고 기름은 밝은 빛을 내기에 없어진다. 공승은 태어나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었으니 내 제자가 아닐세.”라고 말하며 밖으로 달아나니 끝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56) 봉맹(逢萌) 서방(徐房) 이담(李曇) 왕존(王遵)

北海逢萌⁷⁵⁾, 字子康, 北海徐房, 字平原, 李曇, 字子雲。平原王遵, 字君

73) 이 고사는 班固 《漢書·鮑宣傳》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해 반고는 “설방은 왕망을 피하기 위해 궤변으로 허유와 소부를 끌어 들였으니 군자는 아니나 의(義)롭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평한 바 있다.

74) ‘老父’는 초나라 彭城지역에 살았던 한 隱士로 후에 ‘楚老’라고 불리기도 했다.

75) 봉맹은 字가 子康이며 北海 사람으로, 《春秋》에 밝았다. 王莽이 忠諫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은 三綱이 끊어졌으니, 벼슬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禍患이

公。皆懷德穢行，不仕亂世，相與爲友，時人號之四子。君公明易，爲郎，數言事不用，乃自汙與官婢通，免歸，詐狂儉年，口無二價也。

【역문】 북해에 사는 봉맹은 자가 자강이다. 북해의 서방은 자가 평원이고, 이담은 자가 자운이다. 평원의 왕존은 자가 군공이다. 이들 모두 마음에 덕을 품었지만 (일부러) 거칠고 추한 행동을 하며 난세에 출사하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이들을 ‘四子’ 라고 불렀다. 군공(왕존)은 주역에 밝았으며 낭의 벼슬을 할 때 스스로 땀을 흘리며 관비와 간통하여 면직되자 고향으로 돌아가 미친체하며 소를 잡아 장사를 했는데, 한 입으로 두 가격을 말하지 않았다.

57) 공휴(孔休)

孔休元嘗被人斫之，至見王莽，以其面有瘡癩，乃碎其玉劍與治之。王莽徵孔休，休飲血於使者前吐之，爲病篤，遂不行。

【역문】 공휴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여겨졌는데, 왕망을 만났을 때 얼굴에 부스럼이 생겨 옥검을 부수었더니 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왕망이 공휴를 쓰고자 했을 때, 공휴는 사자 앞에서 피를 토하였고 병이 위독해지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58) 양웅(楊雄) 76)

닥칠 것이다.” 하고, 관을 벗어 등문에 걸어 두고는 떠나 遼東에 가서 살았다 한다. (《後漢書·逸民列傳·逢萌》)

76) 전한 촉군 성도 사람으로, 자는 子雲이다.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좋아했고, 많은 책을 읽었으며, 辭賦에도 뛰어났다. 청년시절에 동향의 선배인 司馬相如의 작품을 통해 배운 문장력을 인정받아, 成帝때 궁정문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40여 살 때 처음으로 京師에 가서 문장으로 부름을 받아, 성제의 여행에 수행하며 쓴 <甘泉賦>와 <河東賦>, <羽獵賦>, <長楊賦> 등을 썼는데, 화려한 문장이면서도 성제의 사치를 꼬집는 풍자도 잊지 않았다.

59) 정단(井丹)

井丹, 字太春, 扶風郿人. 博學高論, 京師爲之語曰: “五經紛綸, 井大春.” 未嘗書刺謁一人. 北宮五王更請, 莫能致. 新陽侯陰就使人要之, 不得已而行; 侯設麥飯葱菜, 以觀其意. 丹推卻曰: “以君侯能供美膳, 故來相過, 何謂如此?” 乃出盛饌. 侯起, 左右進輦, 丹笑曰: “聞桀紂駕人車, 此所謂人車者邪?” 侯卽去輦. 趣騎梁松, 貴震朝廷, 請交丹, 丹不肯見. 後丹得時疾, 松自將醫視之, 病愈. 久之, 松失大男磊, 丹一往弔之, 時賓客滿廷, 丹裘褐不完, 入門, 坐者皆竦望其顏色, 丹四向長揖, 前與松語, 客主禮畢後, 長揖徑坐, 莫得與語. 不肯爲吏, 徑出, 後遂隱遁, 其贊曰: “井丹高潔, 不慕榮貴. 抗節五王, 不交非類. 顯譏輦車, 左右失氣. 被披褐長揖, 義陵群羣.”

【역문】 정단은 자가 태춘으로 부풍 미형사람이다. 박학다식하고 고담준론하여 도성에서 그들 두고 ‘오경에 뛰어난 경대춘, 일찍이 한 번도 이름을 내밀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고 했다. 북궁의 오왕이 거듭 정단을 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신양후 음취는 사람을 시켜 정단을 오게 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다. 신양후는 보리밥과 푸성귀 반찬을 차려서 대접하며 정단의 뜻을 살폈다. 이에 정단은 “군후께서 능히 맛있는 음식을 내셨을 것이라 생각해 와서 보았는데 어찌 이와 같습니까?” 그러자 신양후는 다시 성대하게 음식을 차려 나오게 하여 정단을 대접하였고, 신양후가 일어나자 좌우의 시종들이 수레를 밀고 들어왔다. 정단은 웃으며 말하길, “결, 주 임금은 사람들이 끄는 수레를 탔다고 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끄는 수레란 말입니까?” 신양후는 즉시 수레를 치우게 하였다. 양송의 부귀함이 조정을 흔들 정도였는데 정단과 교류하기를 청했으나 만나주지 않았다. 후에 정단이 전염병에 걸리자 양송은 친히 의원을 데리고 와서 그를 치유해 주어 병이 다 나았다. 이 후에 양송이 큰 아들 양퇴를 잃자 정단이 조문하러 갔는데, 당시 빈객들이 저택에 가득했는데, 정단이 갓옷과 갈포옷조차도 입지 못하고 문에 들어서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경외심으로 그의 안색을 쳐다보았다. 정단이 사방으로 인사를 하고 양송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했다. 손님과 주인이 모두 예를 마치자 길

게 읍하고 나서 곧 자리에 앉아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관리가 되고 싶지 않았기에 곧 그곳을 나와 바로 은둔하였으니 그를 칭송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단의 인품은 고결하여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오왕에게 절개를 굽히지 않았고 같은 무리가 아니면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 드러내 놓고 수레를 비난하였으니, 좌우의 시종들이 모두 아연실색했네. 갈포옷 걸친 채 길게 읍하니 그 절개가 못 사람들을 압도하였다네.”

60) 정균(鄭均)⁷⁷⁾

鄭均字仲虞，不知何許人也。不仕漢朝，章帝自往，終不肯起，曰：“陛下何惜不爲太上君，令臣得爲偃息之民？”天子以尙書祿終其身，世號之白衣尙書。

【역문】 정균은 자가 중우인데, 어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한 왕실에 출사하지 않았는데, 장제가 친히 그에게 왔으나 끝내 일어나지 않고 “폐하께서는 어찌 애석하게도 세상의 군주가 되지 않고 신하를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말했다. 천자가 상서의 녹을 평생토록 내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백의상서’라고 불렀다.

61) 고봉(高鳳)

高鳳，字文通，南陽人也。少爲書生，家以農畝爲業，而專精誦習，晝夜不息。妻嘗之田，曝麥於庭，令鳳護雞；時天暴雨，鳳持竿誦經，不覺潦水流麥。妻還怪問，乃省。其後遂爲名儒。

【역문】 고봉은 자가 문통이며 남양 사람이다. 어릴 적 서생일 때 그의 집은 밭가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지만 책을 읽는 것에 정통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았

77) 鄭均은 자가 仲虞이며, 東平國 任城縣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黃帝와 老子的 책을 좋아했다. 형이 현의 관리가 되었을 때 자주 예물을 받았는데, 정균이 몇 차례나 그러지 말라고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에 몸을 빼내 풀밭이에 나서 한 해 남짓 일하여 돈과 옷감을 마련했다. 정균이 고향으로 돌아와 그것을 형에게 주면서 말했다. “재물이 떨어지면 다시 벌 수 있지만, 관리가 되어 뇌물죄를 저지르면 평생 버림받습니다.” 형이 그 말에 크게 감동하여 청렴결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다. 한 번은 그의 처가 밭에 나가면서 앞마당에 보리를 말리고 있으니 고봉에게 닭을 잘 지켜보라고(닭이 보리를 쪼아 먹지 못하도록) 했다. 그 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지만 고봉은 죽간을 들고 계속 경서를 읽다가 빗물에 보리가 떠내려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처가 돌아와 이상해 그를 책망한 후에야 고봉은 (보리가 떠내려간 것을) 알 수 있었다. 후에 고봉은 유명한 선비가 되었다.

62) 대동(臺佟)⁷⁸⁾

63) 공숭(孔嵩)

贊曰, “仲仙通達, 卷舒無方, 屈身廝役, 挺秀含芳。”

【역문】공숭을 칭송하며 말하길, “중선은 모든 일에 통달하여 막힘이 없으며 유연하게 대처하며 몸을 굽혀 힘든 일을 마다않고 능력이 매우 빼어나고 고매함을 지녔다.

3. 나가는 말

《聖賢高士傳贊》에는 正史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여러 隱士들의 행적과 기사를 수록하고 이를 찬양함으로써 위진 시기 혼란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시대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인물상을 제시하고 훈탁해진 가치관을 재정립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혜강의 노력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聖賢高士傳贊》은 사상적으로 장자의 것을 계승, 발전을 시켰으며, 혜강 자신의 ‘養生’과 ‘任自然’하려는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또

78) 대동은 자가 효위이며 동한 익주 업성 사람이다. 그는 밖으로 나가 관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안의 한 산에 은거하였으며, 산에 굴을 파서 약초 채집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건안 초년에 주에서 대동을 불러 그에게 관직을 주려 하였으나 그는 끝내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한 중국문학사에 있어서 《聖賢高士傳贊》의 서술형식으로 사용한 우언과 가설은 혜강 본래의 강직하고 거침없이 생각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방법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여 혜강의 자아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혜강의 산문을 연구하는데 매우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비록 《聖賢高士傳》의 자료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상세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를 토대로 기존 가치관의 몰락과 새로운 변혁 속에서 혜강 자신이 제시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인물이론과 선별기준, 그리고 새로운 성현고사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Abstract >

Ji kang, who had great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literature, philosophy, aesthetics, is an valuable writer and artist in Wei-Jin dynasty. He wrote a lot of great literary works, and his remarkable work, 《Sages and Men of Virtue Biography》 is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 which is concerned about 'Personalia' at that time. Ji kang's 《Sages and Men of Virtue Biography》 is the first biography which is named 'sage' in Three-Countries biography.

In order to protect and reveal his idea, Ji kang collects fable and hypothesis about sages and men of virtue, it gives us general ideas of the development of hermit culture and concept of hermit, so the work can be pitched clearly in the history of hermit culture. It has stronger influences to later biography. These people are the hermits who live eagerly, are revealed Ji kang's hope. Also these people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particular criteria, Ji kang really wants to live like these people, to expresses his own self-consciousness.

Key words: Wei-Jin dynasty, Ji-kang, Personalia, hermit, self-consciousness,
《Sages and Men of Virtue Biography》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5. 6. 31.	2015. 7. 14.	2015. 8. 11.	2015. 8. 18.	2015. 8. 31.